

(10) 율봉서원(栗峰書院)

1824년(순조 24)에 호남유림들이 발원하여 정극인(丁克仁)·정숙(丁淑)·정승조(丁承祖) 등 영광 정씨를 배향하는 사우로 건립하였다. 1868년에 훼손되었는데 1948년 옛터에 복원하여 지금에 이른다. 현재 별량면 우산리 간동마을에 있다.

정극인(1401~1481)의 자는 가택(可宅), 호는 불우헌(不憂軒), 본관은 영광이다. 진사 곤(坤)의 아들로 태인에서 태어나 1429년에 생원이 되고, 1453년(단종 1)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벼슬에 이르렀다. 수양대군에 의해 단종이 폐위되자 벼슬에서 물러나 태인에서 후학들의 교육에 힘썼다. 가사문학에 뛰어나 최초의 가사작품인 『상춘곡(賞春曲)』을 짓기도 하였다.

정숙은 정극인의 후손으로 참봉 응일(應逸)의 아들이다. 자는 청부(淸夫), 호는 퇴재(退齋)이다.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는데, 1598년 9월 해룡면 예교에서 명나라 장수 유정(劉縉)이 왜군에 포위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하러 가서 격전을 치르다가 중과부적으로 패하게 되자 바다에 투신,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정승조는 정숙의 조카로서 자는 계열(啓烈), 호는 야암(野庵)이다. 정유재란 때의 예교성싸움에서 숙부 정숙과 함께 싸우다 투신,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